

오 희 미국 브라운대학교 수학과 교수 한국 수학계 이끄는 우먼파워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ung87@hanmail.net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대 수학과 강석진 교수에게 오 희 교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강 교수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정말 엑셀런트한 후배입니다”라고 답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강 교수가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할까.

궁금하던 차에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오 교수(38)를 만났다. 지난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 종신교수로 임용된 그는 올해 초 브라운대학으로 옮긴 상태다. 이른바 ‘아이비리그’에서 종신교수를 따내는 한국 과학자들이 요즘 더러 생기고 있지만 수학 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수학계 내부에서 오교수의 위상은 높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공부와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마침 학교 앞에서 성당을 발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뭔가 가슴에 와 닿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 스스로가 여유를 가지니 일도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남들은 어렵다는 미국 유학 생활이 술술 풀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5년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지 2년 후, 만 서른의 나이에 프린스턴대학에 조교수



오 희 교수의 강연모습



로 임용됐다. 이후의 캘리포니아공과대학과 브라운대학까지 합하면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 3군데 교수를 해본 셈이다.

오 교수의 전공은 리 대수이다. 전공자가 아니면 리 대수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 대수를 이용한 방법론을 여러 수학 분야에 응용해보는 것이다. 수학 중에서도 분야별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질을 섞는 ‘퓨전’ 학문인 셈이다.

그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리 대수와 그 응용’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 연구하겠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요즘 고등과학원이나 대학들을 둘러보면 연구 환경이 참 좋다고 감탄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겠죠”라고 말했다.

사실 요즘 들어 한국 수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과학원의 황준묵 박사나 오용근 박사가 우리나라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수학자의 저변도 확대되고 우수한 수학자들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구환경뿐 아니라 서울의 길거리도 많이 변했다. 청계천이나 인사동 같은 데를 둘러보면 서울이 정말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사는 친구나 가족들을 보면 너무 바빠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어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유학 시기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 메달’을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이미 나이가 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 수학이 발전한다면 조만간에 후배 수학자 중에 필즈 메달을 받을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ST**